

본회의 '90년도 주요 업무실적

1. 안정 성장, 기반 확보

- 수출 및 경기동향 매월 점검
- 수출예로 타개대책반 운영
- 주요건의 및 개선 성과

1) 환율 안정화

—작년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는 5.2% 절하, 원화는 6.2% 절상으로 다소 개선. 그러나 '87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원화가 더 많이 절상된 상태

2) 노사화합 및 임금안정화

- 구로지역 등 7개 지역에 노사협의회 구성
- 노사화합을 위해 해외연수단 파견, 친선등반대회, 테니스대회 등 개최
- 임금안정화 여건조성 등으로 우리 업계의 평균 임금상승율은 '89년에 21.9%에서 13.9%가 인상되어 안정화 추세

3) 수출지원 제도 개선

- 무역금융의 경우 용자단가를 '89년에 비해 중소·중견기업은 50원씩, 비계열 대기업에게는

환율 절상률

구 분	'87	'88	'89	'90	절 상 률 (%)	
					'89/'90	'87/'90
한 국 (W/\$)	792.30	684.10	679.60	716.40	-5.2	10.6
일 본 (¥/\$)	123.50	125.85	143.85	135.40	6.2	-8.8
대 만 (NT\$/ \$)	28.55	28.17	26.16	27.11	-4.5	5.3

주: 매년 12월말 기준

전자산업의 임금상승률

(단위: %)

구 분	평 균	내 역 별		업 종 별		
		인 건 비	후생복지비	가 전	산 전	부 품
'89	21.9	20.6	23.1	22.3	21.3	22.2
'90	13.9	14.3	13.2	13.6	14.7	13.2

무역금융 지원제도 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'89	'90	인상액
중 소 · 중 건 기 업			
생 산 자 금	530	580	50
원 자 재 수 입	430	480	50
원 자 재 구 매	600	650	50
포 괄 금 융	550	600	50
비 계 열 대 기 업			
생 산 자 금	260	360	100
원 자 재 수 입	200	300	100
원 자 재 구 매	340	440	100

100원씩 각각 인상

- 관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부터 방위세가 폐지되며, 관세분할납부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~5년으로 연장

- 세액 신고 납부절차도 사전심사없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면 그대로 수입면허를 한 후 사후에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

4)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강화

- 특별외화대출은 본회 추천을 통해 지원한 것만도 지난 1년동안에 모두 1,434건에 6억 6,700만불(약4,780억원)이며

- 이를 위한 세제지원도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'91년말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율을 15%에서 20%로 상향조정

- 또한 공장건설제한 완화측면에서는 이전축진 및 제한정비 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하고 공장설립절차도 신고, 건축허가, 준공검사, 공장등록 4단계로 간소화

5)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, 정보화 촉진 지원제도의 대폭 보강

- 지난 1년동안 공장자동화에 대해서는 104억원을 사무자동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자금으로 262억원을 각각 지원

- 금년부터는 자동화투자에 대한 수요자금용 5,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동화 기술개발에 1,500억원을 지원하며

- 자동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중소기업이 자동화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 10%(외산 3%)에서 15%(외산 5%)로

상향조정 했고

- 국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 기기도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

6) 소련 등 동구권의 신시장개척, 수출증대에 돌파구 구실

- 소련 등 동구권의 신시장개척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이들 지역에 2차에 걸친 전자공업협력조사단을 파견하고 또 소련 계측기술협력단 초청 및 내한 유관기관 및 업체인사들과 협력, 교역증대 여건 조성

7) 전자파 장애 방지 시험검사 시행 연기

- 정부는 전자기기 보급과 이용의 증대로 전자공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'90년 7월부터 전자파장애 방지 시험검사 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

- 우리 업계로서는 사전준비의 부족, 최근 경영여건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시행의 연기, 대상품목의 축소 등을 건의한 결과 일단 그 시행을 1년정도 연기키로 함.

8) 제21회 한국전자전 개최

- 전시장규모 : 20,736/M(6,284평)

- 전 시 업 체 : 18개국 524개사

- 참 관 인 : 262,155명(외국인 : 6,120명)

- 수출상담액 : 10억 4,900만불

- 부대행사

• 신제품개발 경진대회

• 첨단기술동향세미나

2. 인력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

1) 기술, 기능인력 확보

- 연구개발인력 확보면에서는 2000년까지 수급전망을 조사해 전자공학회 등 5개 기관 연명으로 수도권내 우수대학(원)의 전자관련학과 정원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를 심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여론에 이를 호소하였던바

- 아직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치 못했으나 우선 차선책으로 수도권대학(서울소재 대학원 제외)은 270명, 지방대학을 포함해서 1,760명(이공계 전체로는 3,820명)을 증원했으며 대학원은 석사 505명, 박사 221명, 모두 726명을 증원했으나 금년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

할 계획

- 공고의 증설과 공고생에 대한 국가장학급 지급제도의 도입은 향후 정부계획에 반영
 -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해 '90년에 처음으로 87개사에 292명에게 특례 적용(전산업 156개사 600명)
- 2) 첨단대형 기술개발 사업지원 확대
- 첨단대형 기술개발 사업은 '90년에 공업발전 기금 70억원을 포함해 모두 2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
 - 또 새롭게 첨단영상기기, 즉 HDTV 개발사업에 50억원, 첨단중형 컴퓨터 개발에 15억원, 차세대 FAX개발에 30억원을 확보해 세가지 분야의 첨단대형 기술개발 사업을 펴나가면서 급년에 지원할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주력
- 3)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확대
- '87년부터 시행해온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은 작년에 모두 120억 4,600만원을 지원해 뇌파계 제조기술 등 112개 기술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'87년 이래 모두 352억원을 지원해 286개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
 - 급년에 개발할 301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
- 4)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세계 개선
-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급산업률을 현재 1.5%(기술집약산업은 2%)에서 3%(기술집약산업은 4%)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
 - 기술,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0%에서 중소기업은 15%로 인상하고 개발인력의 범위도 현재 석사(중소기업은 학사 이상)이상에서 학사 이상(중소기업은 전문대졸 이상)으로 확대
 - 또한 반도체, 컴퓨터 등 첨단기술 산업이 도입하는 국산불가 시설제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시한을 '91년까지에서 '93년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감면율도 '91년에 30% 수준에서 재무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
 - 국산이 불가능한 산업용 S/W의 수입관세 감면제도 도입

3. 전자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보산업 및 부품의 소재산업 육성

○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보화 및 정보산업 실태를 조사, 정보산업연감발간, 보급을 통해 앞으로 정보산업의 발전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

1) 정보화 촉진세제 신설

-정보산업 진흥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연구를 통해 정보화 촉진세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15개 유관단체 공동 명의로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바 S/W사업체는 초기 5년간 50%의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하였으며

-S/W산업도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에 정보처리 산업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

2) 중소기업 정보화 자금 지원을 통한 수요창출

-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자금은 총350개사에 262억원을 지원하여 컴퓨터, S/W 등의 수요 창출에 기여

3) S/W산업 육성방안 수립

-S/W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현 지원제도 조차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증점적으로 조사(예: 아파트형 공장건설 협동화 사업 등)하여 급년에 문제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

4) 컴퓨터특히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

-선진국들과의 특허분쟁이 심화되어 가는데 비추어 우리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, 정보지원, 공동 기술조사 등의 사업추진

5) 컴퓨터기술원 등의 설립

-정보산업 진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이 확대되어 가야하므로 부설 컴퓨터 훈련센터를 별도 법인화시켜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했으며

-이밖에도 산업정보원, DB산업협회 등 전문기관, 단체 등의 설립으로 정보산업 진흥 저변을 강화

6) 부품, 소재 등의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

-전자부품 국산화 5개년계획 사업이 시작된 '87년 이래 '90년까지 개발대상품목으로 고시된 것은 모두 1,128개 품목, 이 가운데 500개 품목이 개발 완료

구분	'90년 지원실적		비고
	입제수	지원액(억원)	
합계	218	272	-
공업발전기금	115	140	컴퓨터 Logic Board의 ASIC화 등
중소기업개발자금	103	132	아크방전방지 무접점 스위치 등

-작년에 우리 업계에 지원된 개발자금은 모두 218개사에 272억원 지원
-이 가운데 공업발전기금은 115개사에 140억원이며 중소기업 개발자금은 103개사에 132억원 지원

8) 컴퓨터 전문 기술인력 양성

- 전문교육과정 : 6개학급 300명
- 컴퓨터 활용교육 : 7개학급 270명
- 부설 컴퓨터 훈련센터 독립 법인화(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)

4. 수입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증진

1) 통상 교섭활동 강화

○통상마찰 대응 실적

지역	품목	형태	대응내용
미국	C-TV	반덤핑	4차 연례 재심 최종판정 (0~2, 24%)
	CPT	반덤핑	2차 연례 재심 자료제출 멕시코 우회수출에 대한 제소, 자료제출, 예비판정
	Keyphone System	반덤핑	ITC판정에 대한 상무성 수정 발표 (13.40~14.75%) CIT제소, 판결
EC	C-TV	반덤핑	확정 판정 (10.2~19.6%)
	CDP	반덤핑	확정 판정 (10.7~26.1%)
	VCR	반덤핑 (Undertaking)	Price Undertaking 재심 (FOB 198 ECU)
	V/Tape	반덤핑	
	A/Tape	반덤핑	예비 판정 (0~19.4%) 협력 회의(대 CECEC) : 2차
	CPT	자율규제	협력 회의(대 EECA) : 3차
	Car Stereo	반덤핑	조사 개시, 답변서 제출, 업체 실사
	IC(DRAM)	반덤핑	제소, 조사 개시

○민간전자통상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

- 위원회 : 통상활동 실적 및 계획 심의(기금 조성 및 사용실적)
- 품목별 분과위원회(48회) : 품목별 세부 대책 시행
- 수입규제 대응, 통상 교섭 협의
 - 통상교섭단 파견(CECED 등) 협의 : 6회
 - 해의 관련단체(EECA 등) 초청 협의 : 2회
- EC집행위원회(수입규제당국) 방문, 협의 : 3회
 - 1차(90. 2) : C-TV, VTR 수입규제 대응 등
 - 2차(90. 9) : Car Audio 산업 정책 등
 - 3차(90. 11) : 한, EC가전업계 협력 등
- 전문가 초청, 수입규제 대응 요령에 관한 설명회
 - EC지역의 변호사 : 4회
 - 국내 공인 회계사 : 2회
- 통상 전문가 양성 현지연수 및 활동
 - 연수기관 : EC, 연구정책국
 - 대의활동 : 반도체, Car Audio 수입규제 정보수집 등

2) 수입규제 예방 활동 적극화

- 수입동향 및 현지 정보수집·분석
 - 수입동향 : 수출주종품 및 수출 급증품목 중심
 - 현지 정보수집·분석 : 현지고용 변호사 및 수출 유관기관 현지사무소 등
- 수출질서위원회 운영 활성화
 - C-TV 등 10개 위원회
 - 회의 : 20회
 - 수출 질서유지, 수입 현지정보 교환 등
 - 수출 자율규제 품목 관리
 - 물량 규제 : MWO, CPT
 - 지도 가격 : VCR, C-TV, MWO, V/Tape
- 현지통상 자문회사 및 변호사 고용, 활동
 - 미국지역
 - 자문회사 : 품목별 수입규제 정보 수집, 통상정책 및 관련법률 정보수집 분석
 - 변호사 : 우리 입장 홍보 보고서 발간(격주간) 배포
 - EC지역

- 변호사 통상대응 법률자문 등

○출초국에 대한 통상사절단 파견

- 파견지역 및 인원 : 미국, 회장 등 업계대표 15명

- 주요활동

- 관련 생산자 단체(EIA, AEA, SIA 등) 자문 협력
- 정부 유관기관(USTR, DOC 등) 자문 활동
- 대언론 기관 대상 활동(기자회견 인터뷰)
- 구매 활동

○생산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노력

- 한미 전자업계 정례회의 개최
 - 주관(EIA) : 통상현안에 관한 정보교환, 상호협력 발전방안 등

- EC

- DG III (집행위원회 소속, 역내산업국) 방문 협의
- 한, EC가전산업 협력발전 방안 등에 관한 협의

- 기타 유관단체 및 업체와의 협력

- AEA : 정기 협력회의, 정보교환 협정, 상호 관심사 협의
- SIA : 통상, 기술협력 현안에 관한 협의 등
- ZVEI : 정보교환, 통상현안 협의 등
- PHILIPS : Car Audio 등 통상현안 협의 등
- EECA : C-TV, CPT 세계시장 자료 등 협의
- CECED : EC MWO 시장자료 조사 협의 등

○전문가 초청, 통상 및 기술협력 대응 세미나 개최

- EC통합예의 대응 : VAN Houtte (벨기에 루벳대 교수)
- 가, 지적소유권 보호예의 대응 : Chalesl R. Mcmanis (워싱턴대 교수)

3) 전자산업의 국제화 촉진

○전자산업의 해외투자 현황 및 계획 조사

- 해외투자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
 - 해외투자 현황 : 품목별, 지역별
 - EC 현지공장 방문 경영실태조사 : 현지

애로요인 중심

- 향후 투자계획조사 및 투자촉진 대책 수립

○상대국 투자 유치기관과의 노력, 현지투자 여건 설명회개최 : 6개지역

- 북잉글랜드산업개발청(NDC), 북아일랜드산업개발청(IDB), 프랑스 Toulouse 상공회의소, 독일 북라인 웨스트 팔리아 경제개발공사(NEW), 화란 경제성 외자협력부, 말타 개발청

4) 북방 진출 강화

○소련과의 협력 증대

- 전자통신산업 협력조사단 파견

- 조사단 : 회장 등 13개 기관, 8개사 대표
- 조사활동 : 정부유관기관, 공장광문 등을 통해 전자통신분야의 협력 촉진

- 소련 과학기술공사(STC) 대표단 초청, 상담 주선

- 상담분야 및 내용 : 계측, 반도체 등 고정밀 기초과학 응용분야의 기술투자 협력

- 상담업체 : 홍창물산 등 6개사

○동구와의 협력 증진

- 무역 사절단 파견

- 주관 : KOTRA, 본회, 업계참여
- 활동 : 박람회 참여,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등

- 동구 통상정보수집 대응

- 유고 : CTV 등 통상현황 모니터링

○중국과의 기술 및 투자협력

- 중국 기술, 투자협력 조사단 내한, 협의

- 길림성 조선족 기업가협회 내한 협의

- 중국기계전자공업부 소속 심양연구소 요원 내한

5) 일본과의 협력 증대

○대일 역조 개선

- 수출촉진단파견 : 한국전장(주) 외 5개사

- 대일 부품개발 협력단 파견 : 범양전자(주) 외 17개사

- 일본의 대한 수출촉진단 유도

- 일본측 : 15개사

수출입상담, 기술협력방안 등

- 우리측 : 64개사

○기술 협력

- 국제 첨단기술 포럼 참가
 - 지역별(미국, 일본 등) 첨단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발표
 -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

- 수집정보의 분류, 가공
- 자료제공 서비스
 - 발간물을 통한 정보제공
 - 자료실 열람 정보제공

5. 자교제공 확대 및 회원서비스 향상

1) 조사 및 정보수집 자교제공 확대

- 조사사업
 - 월별 전자공업 통계조사
 - 외국의 전자공업 통계 조사
 - 세계 전자시장 전망조사
- 국내외 기술, 시장 정보수집, 가공
 - 정보수집 : 총 2,368건
 - 기술 : 시장·산업 및 국내외 등

2) 민원업무 등의 서비스개선

- 기본처리방향 : 신속, 공정, 친절 등
- 처리내용
 - 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타당성 검토
 - 수출입 추천서 처리
 - 인콰이어리 수출 연계

3) 업계 총의 수렴을 위한 각종 회의 활성화

- 총회 및 신년입사회 : 각1회
- 이사회 : 4회
- 전자산업발전민간협의회 : 4회
- 기능별, 품목별 회의 : 753회